

건축 문화재 복원 - 가장 한국적 관광 인프라 구축의 길

- 역사 되찾기는 후손에 대한 의무이기도, 古宮 및 사라진 지방 문화재 복원해야 -

건축 문화재는 인공으로 만든 건조물로써 건축물의 성격과 문화재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건축물은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난처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재로서의 건축물은 건축 자체는 물론 단청, 벽화와 같은 미술, 목조각 같은 공예 등 각종 예술이 믹스된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익숙하고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종합 예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건축 문화재는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관광 대상이 되어 왔다.

관광 상품 활용도 증대

최근 건축 문화재 복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관광 대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여 관광에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살펴보자.

경복궁은 역성 혁명(易姓革命)으로 정권을 세운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건립한 조선 시대의 정궁(正宮)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대원군에 의한 복원 이후 일제의 의도적인 말살 정책으로 허울 좋은 궁궐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궁궐 내에 침략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이 세워지고 여러 건물들이 훼손되고 광화문은 이진되는 등 그 정궁으로서 면모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복궁의 면모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다.

왕과 왕비의 숙소였던 침전(寢殿) 지역, 동궁(東宮)의 거처였던 동궁 일원 등의 복원을 거쳐 광화문과 근정문을 잇던 흥례문 일곽이 복원되었다. 이로써 경복궁 북쪽에서 흘러내려 오던 명당수가 일부분 복원되었고 영제교도 원래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한편, 과거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인 태원전 일곽도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래의 위치에서 20m 정도 뒤로 물러나 있는 광화문 복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서십자각 등과 함께 복원한 광화문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심광이 복원된 경복궁은 건물뿐만 아니라 수문장 교대식 등 의례도 함께 복원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박물관 등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과거보다 많은 관람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불국사는 감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경덕왕대(752)에 건립한 대표적인 사찰로서,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건립하였던 석굴암과 함께 당시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세가 기울어 석축은 무너지고 건물을 노후하였으며 아래 연못은 메워지고 잡초가 무성한 등 퇴락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1970년대 초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불국사를 복원 정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 유구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설계 및 복원 공

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과 회랑 등은 건물은 없어진 채 초석 등의 흔적만 남아 있었으나 발굴을 통하여 유구를 확인 이를 복원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범영루, 좌경루 등을 신축하였으며 이후에도 일주문과 요사채 등을 차례로 복원하여 오늘날의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보길도는 조선 시대의 윤선도가 만년에 머문 곳으로 각종 정자들과 정원 관련 시설 흔적들이 남아 있던 곳이다. 그 동안 육지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특별한 관심을 지닌 사람 외에는 찾는 발길이 드물었다. 보길도 중심에는 윤선도가 가장 즐겨 찾던 세연정이라는 정자가 없어지고 기단만 남아 있던 것을 발굴 결과 유구를 확인하고 복원한 뒤 보길도 전체가 정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그 이후 많은 관광객이 이를 찾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용인민속촌은 경제 성장의 와중에서 급격히 사라져가는 전통 가옥을 한 곳에 이집하여 조성한 일종의 테마파크이다. 이곳은 서울에서 불과 1시간여의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의 분야별 전통 가옥을 보존하고 있는 야외 박물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용인민속촌은 단순히 가옥을 덩그러니 배치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옥과 어우러진 옛 생활을 재현하여 현장감을 톡톡히 살리고 있다. 즉 대장간에서 도구를 직접 만드는 모습, 줄타기와 같은 민속놀이의 재현, 질편한 장터 모습의 재현 등을



최근에 복원된 경복궁 홍례문. 수문장 교대 의식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도하여 전통 건물과 함께 당시 생활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매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

안동에서 자동차로 40 분여를 달려 가면 지례 예술촌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안동댐을 축조하면서 그 주변의 전통 가옥을 한곳으로 모아 이진한 장소이다. 지례 예술촌은 오늘날 내국인에게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통 체험 장소로 활용되고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전통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훌륭한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서양 사람들이 이곳에 한번 숙박하면 그 감동을 내내 잊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이곳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아 가을에는 송이버섯 따기를 곁들여 관광 상품화하고 있어 복합적인 관광 대상으로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TV 세트장도 효자 노릇

문경새재에 조성되어 왕건 세트장은 다른 형태의 복원 사례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극은 세트장을 별도로 조성하기보다 기존에 남아 있는 전통 건물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 즉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은 텔레비전 사극 드라마의 주된 세트장으로 활용되었다. 궁궐 건물을 직접 세트로 활용할 경우 그 리얼리티는 다른 어떤 건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뛰어나며 고증상의 어려움도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궁을 세트장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여 제한된 시간만 활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더구나 그 시대 배경이 조선 시대를 벗어나 고려 시대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 고증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야간 촬영시에는 햇불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이 염려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문경새재 왕건 세트장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세트장을 건설하는 일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방송공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 표명을 받아 들어 문경에 세트장을 건립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래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착

수하게 되는데 문경시는 세트장을 향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 유치하게 되었다. 드라마 왕건의 성공은 바로 문경 세트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문경시의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극을 주어 이와 유사한 드라마 세트장 의 지방자치단체 유치를 이어지게 하였다.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 복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간략화한 형식으로 모방하고 있으나 전통 건조물이 그 대상이 되므로 관광객들에게는 전통과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넓은 개념의 문화재 복원으로 볼 수 있다.

복원 문화재는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원을 통하여 생명력을 부여받은 건축 문화재는 가장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원의 세부적인 방식은 대상 건축물의 성격과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복원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적 질곡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제는 선진국 경제 대열에 진입하는 시점에 와 있는 이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은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청량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건축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건축 문화재 보존과 함께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